

##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Quality of Life among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 Mediating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

Gyoung Hwa Kim<sup>#</sup>, Eun Kyoung Shin<sup>+</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nkook University, Cheonan Campus,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self-esteem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affects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1,002 disabled wage workers in Korea from the 7th Disabled Employment Panel Data. The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and Sobel test revealed that the self-esteem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directly influenced on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positive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whil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negative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improving health-related status and reducing discrimination experience for the disabled.

**Key words:** self-esteem,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lth status,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구수는 2005년 214만 명, 2011년 268만 명, 2014년 273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최근 급격한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책수요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

활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고용과 복지, 교육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장애인들이 삶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최고로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소득보장이 38.5%, 의료보장이 32.8%, 고용보장이 8.5%, 주거보장이 6.4%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은 소득의 원천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사회경제

<sup>#</sup> The 1st author: Gyoung Hwa Kim, Tel. +82-41-334-4050, e-mail. kghwa40@naver.com

<sup>+</sup> Corresponding author: Eun Kyoung Shin, Tel. +82-41-550-3241, Fax. +82-41-559-7853, e-mail. fiat87@dankook.ac.kr

적 지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존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서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확보되어야 하고, 개인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고용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신에 맞는 합당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증진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생계수단의 의미를 넘어 자아실현을 하게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Shin, 2013).

이에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6%, 고용률은 37.6%, 실업률은 6.6%로 나타나는 반면에,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0%, 고용률 60.8%, 실업률 3.6%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비율은 장애인이 17.5%로 전체 인구의 8.4%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장애인이 58.5%로서 전체 인구의 3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 37.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1%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단순 기능·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 취업한 장애인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편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며, 열악한 환경과 높은 이직률은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그들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1).

삶의 질이란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만족도(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으로 표현하는 보편화된 개념이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등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하였다(Paik, 2003). 장애인의 삶의 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취업의 제약, 사회적인 관계의 제약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Sin, 2009).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각 개인마다 생활사건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결정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Brown, 1993).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의 자기실현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기초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Taft, 1985)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관적 건강과 차별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관적 건강은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Farmer & Ferraro, 1997).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견해를 의미하고,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Lee, *et al.*, 2016). 또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 격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Kim, *et al.*, 2011).

장애인에 대한 차별경험은 사회의 물리적 환경, 교육제도, 의료 제도, 가족 제도, 대중매체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Park, 2004).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며, 고립과 소외, 그리고 열악한 삶의 질로 고통 받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낮춘다고 하였다(Beckles, 2004).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5; Park, 2014; Lee, 2010; Sim, 1997; Lee, 2003; Ko & Kim, 2014; Hwang & Lee, 2011; Kim, 2007),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Kim, 2011; Park, 2013; Paik

& Roh, 2009; Moon & Lee, 2014; Kwon, 2008; Park, 2010; Kim & Kim, 1999; Yu, *et. al.*, 2016; Jung, 2014), 장애인의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Ahn & Kim, 2009; Park, 2014; Park & Yang, 2013; Choi, *et. al.*, 2014; Ju & Chung, 2016; Shin, 2015; Lee, 2009; Song, 2012; Park, 2014; Lee, 2011; Park & Yang, 2013)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으로 단편적인 영향관계 위주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편적인 영향관계를 넘어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의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에 의해 매개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연구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셋째, 차별경험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에 대한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판

단하는가이며 이는 인생의 행복과 적응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Kim, 2006).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관심, 인정,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사랑과 소속감이 욕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안정되며, 자기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도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Maslow, 1970).

자아존중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이며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Park, *et. al.*,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진취적이면서 활력 넘치게 전개하면서 생활이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만족과 경멸 등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가 지속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Kim, 2014).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et. al.*(2015)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Park(2014)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차별경험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Lee(2010)는 간질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Sim(1997)에서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2004)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 Kim(2014)은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상생활 만족도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 Yi(2011)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

의 질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07)은 자아존중감은 성인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2.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매개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1년 신체 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및 개인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포괄적인 건강'을 설명하는 ICF를 승인하였고, 세계 각국에 이 분류기준에 관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Shin, 2013). ICF의 승인은 개인의 기능, 장애, 건강상태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언어로서 건강 관련 의사소통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ICF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건, 보험, 교육, 노동, 장애정책, 보건통계학 같은 부분에서 이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4).

포괄적 건강상태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포괄적 건강상태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 해석하는 태도나 주관적 신념의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ICF는 포괄적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개념의 분류체계이지만, 이 건강상태를 인식하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개인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은 개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몇 가지 질병이 있어도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에 대한 신체적·생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복잡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Nam & Nam, 2011).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현재의 건

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생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이는 종래의 소극적인 건강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Moon & Lee, 2014).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년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05), Song(1984)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반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Kim(2011)은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지각의 하위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3)은 고령여성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ik & Roh(2009)는 중·노년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Moon & Lee(2014)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각된 건강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2008)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건강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건강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ark(2009)은 장애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질병유무의 인식이나 객관적 건강상태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Kim & Kim(1999)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주관적 건강상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3.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매개하는 차별경험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일

한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Yun, *et. al.*, 2013).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나누며, 직접차별은 실제에서 명백하게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하며, 간접차별은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실제 적용될 때 특정 집단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천을 하는 경우를 간접차별이라 말한다(Lee, 2009).

직접차별이든, 간접차별이든 차별을 받게 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둘러싼 시설 및 불리한 처우를 개선할 때 삶의 질이 나아진다(Kwon, 2008). 장애인의 차별적 경험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중적으로 발생되며, 복합적인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상화 된다(Moon & Lee, 2013).

자아존중감과 차별경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Ahn & Kim, 2009; Park, 2014; Park & Yang, 2013; Choi, *et. al.*, 2014; Ju & Chung, 2016), 자아존중감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연구는 미미하다. 일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장애인 차별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hin, 2015)고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Lee(2009)는 차별정도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Song(2012)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4)은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고, Lee(2011)는 장애인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경험은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Park & Yang(2013)은 차별경험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수용이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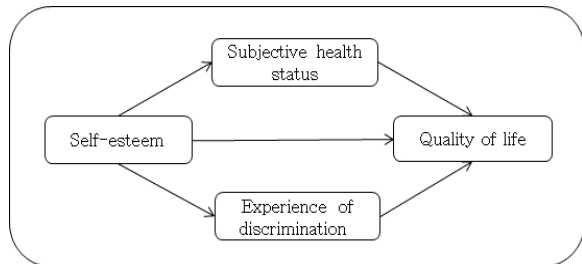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 2. 연구대상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2008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종단적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2014년도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7차년도 패널조사의 등록 장애인 4,082명이며, 그 중 임금근로 장애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eon(1974)이 번역한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s)을 사용했으며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4)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6)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7) 나는 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8)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875이었다.

## 2) 종속변수: 삶의 질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일상생활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삶에 만족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1) 가족, (2) 친구, (3) 살고 있는 곳, (4) 건강상태, (5) 수입, (6) 여가활동, (7) 하는 일, (8) 결혼생활을 포함하여 총 8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1=매우 불만족'에서 '5=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이 8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540이었으나 장애인의 경우 '결혼생활'은 연구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는 주장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생활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한 차별적 경험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결혼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Lee, 2014), 경제적 스트레스는 적대적인 행동이 증가되고 지지적 행동은 감소하여 결국 관계는 갈등적이 되기 쉬워,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et al.*, 1990; Vinokur, *et al.*, 1996; Hyun, 2007). 또한 장애인의 결혼생활은 정상인보다 전반적 불만족, 성적불만족, 문제해결의사소통 불만족, 자녀양육갈등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 Kim,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결혼생활' 문항을 제거한 후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의 Cronbach's  $\alpha$ 값은 .736이었다.

## 3) 매개변수: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좋은 편이다. 4=매우 좋다'로 구성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인 차별경험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제공한 항목 중 '일상생활 상의 차별경험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을 사용했으며, 각 항목은 '1=전혀 없음, 2=조금 있음, 3=많음, 4=매우 많음'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의 Cronbach's  $\alpha$ 값은 .736이었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장애정도, 만성질환보유여부, 종교보유여부,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대인적지지 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노후준비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 장애등급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해 '0=여성, 1=남성'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연령대는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6=70대'로 재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이상'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혼인 상태는 '0=기타(미혼, 이별, 사별, 별거), 1=유배우동거'로, 장애 정도는 '1=중증, 2=경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변수 처리하여 '0=중증, 1=경증'으로, 만성질환보유여부는 '0=없음, 1=있음'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종교보유여부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0=없음, 1=있음'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는 '1=하층, 2=중하층, 3=중상층, 4=상층'으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대인적지지 필요여부는 '0=아니요, 1=예'로, 흡연여부와 음주여부는 '0=아니요, 1=예'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노후준비여부는 '0=아니요, 1=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

부는 '0=아니요, 1=예'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      급, 6=6급'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으며, 장애등급은 '1=1급, 2=2급, 3=3급, 4=4급, 5=5

Table 1. Description on main variables

Classification	Name of variables	Description	Variable measurement
In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1) I think I am as worth as others, (2) I think I have a good character, (3) I can work well with most other people. (4) I have something boast about, (5) I am mostly satisfied with myself, (6) I wish I could respect myself more, (7) I feel that I am a useful person, (8) I think I am a good person,	1. Mostly disagree 2. Neutral 3. Mostly agree 4. Strongly agree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1) family, (2) friends, (3) place where you live, (4) health status, (5) income, (6) leisure activity, (7) job, (8) married life	1. Very dissatisfied 2. Dissatisfied 3. Neutral 4. Satisfied 5. Very satisfied
Parameter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1. Very poor 2. Somewhat poor 3. Good 4. Very goo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live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1. Never    2. A little bit 3. Many    4. A lot of
Control variable	Gender	Recoding gender	1=Male, 0=Female
	Age	Recoding age	1=20's, 2=30's, 3=40's, 4=50's, 5=60's, 6=70's
	Educational background	Educational background	1=Ineducation, 2=Elementary school diploma, 3 =Middle school diploma, 4=High school diploma, 5=College diploma or higher
	Marital status	Recoding marital status	1=Live with a spouse, 0=Other cases (single,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Degree of disability	Recoding degree of disability	1=Minor, 0=Major
	Chronic disease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have a chronic disease or not	1=Yes, 0=No
	Religion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have religion or not	1=Yes, 0=No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1=Lower class 2=Lower-middle class 3=Upper-middle class 4=Upper class
	Interpersonal support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receive interpersonal support or not	1=Yes, 0=No
	Smoking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smoke or not	1=Yes, 0=No
	Drinking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drink or not	1=Yes, 0=No
	Preparation for old age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prepare for their old age or not	1=Yes, 0=No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Recoding whether respondents a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or not	1=Yes, 0=No
	Disability level	Disability level	1=Level 1, 2=Level 2 3=Level 3, 4=Level 4 5=Level 5, 6=Level 6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척도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영향력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을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Mackinnonet,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정값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총 1,002명의 응답자 중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이 73%로서 여성의 27%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연령대는 50대가 37.7%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60대가 25.3%, 40대가 23.1%, 30대가 8.8%, 20대가 3.6%, 7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은 37%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초졸이 22%, 중졸

Table 2. Frequenc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Gender (N=1002)	Female	271	27.0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N=1002)	Lower class	440	43.9
	Male	731	73.0		Lower-middle class	493	49.2
Age (N=1002)	20's	36	3.6		Upper-middle class	67	6.7
	30's	88	8.8		Upper class	2	0.2
	40's	231	23.1	Interpersonal support (N=1002)	No	858	85.6
	50's	378	37.7		Yes	144	14.4
	60's	254	25.3	Smoking (N=1002)	Yes	686	68.5
	70's	15	1.5		No	316	31.5
Educational background (N=1002)	Ineducation	68	6.8	Drinking (N=1002)	Yes	407	40.6
	Elementary school	220	22.0		No	595	59.4
	Middle school diploma	182	18.2	Preparation for old age (N=1002)	No	635	63.4
	High school diploma	371	37.0		Yes	367	36.6
	College diploma or higher	161	16.1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N=1002)	No	908	90.6
Marital status (N=1002)	No	348	34.7		Yes	94	9.4
	Yes	654	65.3	Disability level (N=1002)	Level 1	35	3.5
Degree of disability (N=1002)	Minor	733	73.2		Level 2	123	12.3
	Major	269	26.8		Level 3	218	21.8
Chronic disease (N=1002)	No	547	54.6		Level 4	170	17.0
	Yes	455	45.4		Level 5	193	19.3
Religion (N=1002)	No	607	60.6		Level 6	263	26.2
	Yes	395	39.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ame of variable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Self-esteem	1.00	4.00	2.590	.520	-.074	.243
Subjective health status	1.00	4.00	2.599	.568	-.081	-.548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1.00	4.00	1.322	.483	1.756	3.761
Quality of life	1.71	5.00	3.267	.473	.080	.035

이 18.2%, 대졸 이상이 16.1%, 무학은 6.8% 순으로 나타나 53.1%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5.3%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높게 분포되었으며, 장애 정도는 경증이 73.2%로서 중증보다 높게 분포되었고, 만성질환여부는 없는 경우가 54.6%로서 있는 경우 45.4% 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또한 종교여부는 없는 경우 60.6%로서 있는 경우 39.4% 보다 높게 분포되었고,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는 중하층이 49.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하층이 43.9%, 중상층이 6.7%, 상층이 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적 지지 여부는 없는 경우가 85.6%로서 있는 경우 14.4% 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그리고 흡연여부는 하지 않는 경우가 68.5%를 보였으나, 음주여부는 마시지 않는 경우가 59.4%로서 마시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여부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63.4%로 한다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서는 90.6%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은 6급이 26.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3급이 21.8%, 5급이 19.3%, 4급이 17%, 2급이 12.3%, 1급은 3.5% 순으로 나타났다.

##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서 평균 2.590,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 척도로서 평균 2.599, 차별경험은 4점 척도로서 평균 1.322, 삶의 질은 5점 척도로서 평균 3.267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 값인 왜도(skewness)는 절대값 2, 첨도(kurtosis)는 절대값 4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r=.201(p<.01)$ , 삶의 질과  $r=.375(p<.01)$ 로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차별경험과는  $r=-.229(p<.01)$ 로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과  $r=.417(p<.01)$ 로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차별경험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차별경험의 경우는 삶의 질과  $r=-.177(p<.01)$ 로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Self-esteem	Subjective health statu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Quality of life
Self-esteem	1			
Subjective health status	.201**	1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229**	-.053	1	
Quality of life	.375**	.417**	-.177**	1

\*  $p<.05$  \*\*  $p<.01$

4.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과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1)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값은 모두 2 이하로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R<sup>2</sup>값은 .232, adj.R<sup>2</sup>값은 .222로서 22.2%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분산의 F값은 21.344(p<.001)로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β=.286, p<.001)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β=-.067, p<.05), 만성질환여부(β=-.111, p<.001)가 부(-)의 영향을,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β=.196, p<.001)가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β값이 .286(p<.001)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R<sup>2</sup>값은 .307, adj.R<sup>2</sup>값은 .297로서 29.7%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분산의 F값은 29.152(p<.001)로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β값이 .243(p<.001)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β=.312, p<.001)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Name of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Constant)		22,584		14,620
Gender	.050	1,547	.033	1,086
Age	-.031	-.876	.023	.692
Educational background	.047	1,386	.041	1,280
Marital status	-.067	-2,135*	-.066	-2,218*
Degree of disability	-.056	-1,843	-.056	-1,956
Chronic disease	-.111	-3,692***	-.016	-.543
Religion	.057	1,948	.048	1,716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196	6,114***	.168	5,477***
Interpersonal support	-.039	-1,306	-.016	-.574
Smoking	-.029	-.919	-.009	-.304
Drinking	.038	1,240	.042	1,432
Preparation for old age	.057	1,906	.046	1,62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38	-1,282	-.044	-1,563
Self-esteem	.286	9,362***	.243	8,294***
Subjective health status			.312	10,321***
R <sup>2</sup>	.232		.307	
adj.R <sup>2</sup>	.222		.297	
F	21,344***		29,152***	

\* p<.05 \*\* p<.01 \*\*\* p<.001

※ Annotation) Gender: 0=Female, 1=Male, Marital status: 0= Other cases (single,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1=Married/live together, Degree of disability: 0=Major, 1=Minor, Chronic disease: 0=No, 1=Yes, Religion: 0=No, 1=Yes, Need for interpersonal support: 0=No, 1=Yes, Smoking: 0=No, 1= Yes, Drinking: 0=No, 1=Yes, Preparation for old age: 0=No, 1=Y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No, 1=Yes

Table 6.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Course	Z	p-value
Self-esteem → Subjective health status → Quality of life	4.183	.001***

타내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 $\beta = -.066$ ,  $p < .05$ )로서 삶의 질에 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beta = .168$ ,  $p < .001$ )로서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모델1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만성질환여부는 모델2에서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매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된 상태에서 삶의 질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의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모델1에서 비해 모델 2에서  $\beta$ 값이 낮아졌으므로(.286( $p < .001$ )에서 .243( $p < .001$ )),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beta = .312$ ( $p < .001$ )).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Sobel 검정(MacKinnon, et. al., 2002)에서 제시한 Z값<sup>1)</sup>을 본 연구모형에 적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z = 4.183$ ( $p < .001$ )로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서, Z값은 Z)1.96 또는 Z<-1.96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경유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차별경험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VIF값이 모두 2 이하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R<sup>2</sup>값은 .232, adj.R<sup>2</sup>값은 .222로서 22.2%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분산의 F값은 21.344( $p < .001$ )로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beta = .286$ ,  $p < .001$ )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 $\beta = -.067$ ,  $p < .05$ ), 만성질환여부( $\beta = -.111$ ,  $p < .001$ )가 부(-)의 영향을,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beta = .196$ ,  $p < .001$ )가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beta$ 값이 .286( $p < .001$ )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차별경험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R<sup>2</sup>값은 .243, adj.R<sup>2</sup>값은 .231로서 23.1%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분산의 F값은 21.076( $p < .001$ )로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beta$ 값이 .267( $p < .001$ )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차별경험( $\beta = -.112$ ,  $p < .001$ )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상태( $\beta = -.070$ ,  $p < .05$ ), 만성질환여부( $\beta = -.117$ ,  $p < .001$ )로서 삶의 질에 부(-)의 영

$$1) Z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elf-esteem → Subjective health status = .149 / SE<sub>a</sub> : standard error of a = .033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ubjective health status → Quality of life = .289 / SE<sub>b</sub> : Standard error of b = .026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ame of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Constant)		22.584		21.282
Gender	.050	1.547	.059	1.826
Age	-.031	-.876	-.038	-1.084
Educational background	.047	1.386	.035	1.028
Marital status	-.067	-2.135*	-.070	-2.257*
Degree of disability	-.056	-1.843	-.076	-2.489*
Chronic disease	-.111	-3.692***	-.117	-3.907***
Religion	.057	1.948	.060	2.048*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196	6.114***	.190	5.930***
Interpersonal support	-.039	-1.306	-.025	-.844
Smoking	-.029	-.919	-.041	-1.280
Drinking	.038	1.240	.038	1.245
Preparation for old age	.057	1.906	.058	1.948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38	-1.282	-.030	-.995
Self-esteem	.286	9.362***	.267	8.678***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112	-3.679***
R <sup>2</sup>	.232		.243	
adj.R <sup>2</sup>	.222		.231	
F	21.344***		21.076***	

\*p<.05 \*\*p<.01 \*\*\*p<.001

※ Annotation) Gender: 0=Female, 1=Male, Marital status: 0= Other cases (single,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1=Married/live together, Degree of disability: 0=Major, 1=Minor, Chronic disease: 0=No, 1=Yes, Religion: 0=No, 1=Yes, Need for interpersonal support: 0=No, 1=Yes, Smoking: 0=No, 1= Yes, Drinking: 0=No, 1=Yes, Preparation for old age: 0=No, 1=Y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No, 1=Yes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β=-.076, p<.05), 종교여부(β=.060, p<.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β=.190, p<.001)로서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모델1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장애정도와 종교여부가 모델2에서는 삶의 질에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매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별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질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의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모델1에서 비해 모델2에서 β값이 낮아졌으므로(.286(p<.001)에서 .267(p<.001)), 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β=-.112(p<.001)).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Sobel 검정 (MacKinnon, *et. al.*, 2002)에서 제시한 Z값<sup>2)</sup>을 본 연구모형에 적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z=3.637(p<.001)로써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서, Z값은 Z>1.96 또는 Z<-1.96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

$$2) Z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elf-esteem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156 / SE<sub>a</sub> : Standard error of a = .029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Quality of life = -.153 / SE<sub>b</sub> : Standard error of b = .031

Table 8.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Course	Z	p-value
Self-esteem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Quality of life	3.637	.001***

수인 차별경험을 경유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Lee(2000), Kang(2008), Shin(2015), Kim(2002)과 동일한 결과였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이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모델1에서  $\beta$ 값이 .286( $p < .001$ )에 비해 모델2에서  $\beta$ 값이 .243( $p < .001$ )로 모델1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델2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beta$ 값이 .312(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검정에 의한 Z값은 4.183( $p < .001$ )으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주

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Kim & Kim, 1999; Paik & Roh, 2009)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매개변수인 차별경험을 포함하여 이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적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차별적 경험을 통제한 모델1에서  $\beta$ 값이 .285( $p < .001$ )에 비해 모델2에서  $\beta$ 값은 .265( $p < .001$ )로 모델1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델2에서  $\beta$ 값은 -.116(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차별적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검정에 의한 Z값은 3.722( $p < .001$ )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차별경험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별경험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Lee, 2009; Shin, 2010, Park, 2014, Park & Yang, 2013; Ahn & Kim, 2009)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을 덜 느끼며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

아존중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 또는 직장에서 쉽게 교육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대인관계기술, 사회적응훈련, 성교육, 의사소통훈련, 상담, 직무능력향상,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On-Off Line 동시 교육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임금근로 장애인에게 교육기회 확대와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 및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 권역별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을 충분히 참여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후 모니터링의 구축 및 장애인 건강 및 재활정보센터 콘텐츠의 양·질적 향상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다양한 기관, 단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가 양성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 시정 및 예방 강화에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 지역사회에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확대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아울러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장

애인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기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루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횡단연구의 인과성 한계를 넘어 삶의 질의 중단변화 및 예측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할 것이고, 더욱 의미 있는 결과와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Ahn, Joon Hee and Seong Yong Kim.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Self-image and Self-esteem among the Korean Elderly: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4): 1645-1663.
- Beckles, M. B. 2004. *Poverty and Disability: Advocating to Eliminate Social Exclusion*. National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rinidad and Tobago.
- Brown, Jonathan D. and Mankowski Tracie A. 1993. Self 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Choi, Soo Jun, Jung Mi Kwon, and Kyo Il Lee. 2014. Effect of Different Levels of a Disability to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a Disability Who Work as a Part-time Employe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Disability & Employment*. 24(3): 147-168.
- Conger, R. D., G. H. Elder, F. O. Lorenz, K. J. Conger, R. L. Simons, L. B. Whitbeck, S. Huck, and J. N. Melby.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46.
- Farmer, M. M. and K. F. Ferraro. 1997. Distress and Perceived Health: Mechanism of Health Decline. *J Health Soc Behav*. 38(3): 298-311.
- Hwang, Hye Min and Myung Sun Yi. 2011. Hope,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3(2): 189-197.
- Hyun, Eun Min.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Marital Instability: Focus on the Interaction Behaviors

- of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1): 45-58.
- Jeon, Byeong Jae.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Paper*. 11: 109-129.
- Ju, Young Ha and Ick Joong Chung. 2016.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on Self-esteem: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arned Incom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2(1): 55-78.
- Jung, Deok Jin. 2014.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Depression to Disabled Elderly: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247-275.
- Jung, Min Chul and Yong Hee Kim. 2014.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Type, Severeness, Economic Act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Using the Employment Panel Data in Everyday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281-306.
- Kang, Lee Ju. 2008. The Effects of Related Factors on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6(5): 129-142.
- Kim, Bong Sun. 2007. A Study on the Disability Creation Process of the Cerebral Palsied.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Eun Ra, Jae Kook Park, and Lyang Eun Park. 2015. Effects of Recognition on Discrimination on the Life-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isability & Employment*. 25(1): 27-54.
- Kim, Ji Tae. 2011.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Life Quality of Participants in Lifetime Sports Program.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19(1): 43-55.
- Kim, Jong Hee. 2014.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to Improve Self-esteem and Enhance Self-integrity of Rural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4(2): 259-275.
- Kim, Jong Mi, Ho Jin Kim, Je Hun Koh, Seong Cheon Kim, and Jong Cheol Choi. 2014. *2014 Survey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Kim, Kwang Ja. 2011.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Ph.D.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 Kim, Kye Ha, Hyun Sook Kim, Kyung Sook Park, and Kyung Sook Park. 2005.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on Subjective Health Statu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7(2): 200-207.
- Kim, Seong Hui, Yeon Hui Lee, Ju Hui Hwang, Mi Ae Oh, Min Gyeong Lee, Nan Hui Lee, Dong Uk Kang, Seon Jin Kwon, Hye Gyeong Oh, Sang Yong Yun, and Seon Woo Lee. 2014. *2014 Survey of the Disable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o Hee and Cho Kang Kim. 1999. The Effect of Physically Challenged Women's Health Condition on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2): 105-119.
- Kim, Tae Hong, Sang Su Ahn, Seon Yeong Park, and Nan Ju Kim. 2011.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to Raise Nationali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Wook. 2006.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mong the Elderly Utilizing Senior Citizen Hall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271-293.
- Kim, Yun Hee and Kyung Sik Pyo.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7(1): 157-189.
- Ko, Min Seok and Dong Joo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from Disability and Daily Life Satisfaction of Severely Disabled Worker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8(2): 105-114.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5 Statistics on the Disabled*.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Kwon, Oh Gyun. 2008. A Survey on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ith Handicap.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9: 7-31.
- Kwon, Seon Jin. 2008.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ory Factors for the Disabled: Focus on the 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Vocational*

- Rehabilitation*. 18(1): 81-103.
- Lee, Hu Yeon, Jong Tae Baek, and Young Chae Cho.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Status for the Elderlies in Urban Area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569-581.
- Lee, Hyeon Song. 1999. Constitution and Determinant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Journal of Symposium of Korean Labor Panel*. 185-206.
- Lee, Jee Soo. 2011.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elf Stigma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1): 277-299.
- Lee, Ji Won. 2000. Quality of Life of Mothers with Cerebral Palsy Children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1): 47-54.
- Lee, Jun Sang. 201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n the Epilepsy-Disabled.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0(1): 5-24.
- Lee, Jung Seob. 2009.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or Disabled Persons: Focus on Registration Disable O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Governance Society*. 16(1): 79-105.
- Lee, Seon Woo. 2009. *Theory and Reality of Welfare for the Disabled*. Paju: Jipmoondang Publisher.
- Lee, Sun Young.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ly III: With a Focus on the Mental Health Center.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3: 125-147.
- Lee, Sun Young. 2004.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ly III from the Perspective of Ecosystem. Ph.D.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Lee, Sung Gyu. 2014.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Type, Severeness, Economic Act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Using the Employment Panel Date in Everyday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281-306.
- MacKinnon, D. P.,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and V. Sheets.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4.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 Revised Edit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Announcement of Survey Results of the Disabled.
- Moon, Pil Dong and Jeong Hwa Lee. 2013. *Theory of Practi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Nanam Publisher.
- Mun, Pil Dong and Jeong Hwa Lee. 2014.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Verification for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6: 173-192.
- Nam, Yeun Hee and Ji Ran Nam. 2011.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Elderly People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145-162.
- Paik, Eun Ryoung.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 Paik, Eun Ryoung and Seung Hyun Roh.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nd Old Aged with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Nonprofit Research*. 7(3): 71-104.
- Park, Ha Youn. 2004.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of Women with Celebral Palsy in their Gender/Sexuality Experi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Hyun Sook and Hee Taek Yang. 2013. The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ith Disabil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Centered on the Effect Paramenters of the Disability Acceptance. *Disability & Employment*. 23(3): 153-174.
- Park, Hyun Sook. 2014.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Next-gen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10: 105-123.
- Park, Jong Kook. 2010.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 in Disability Sport Club.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Park, Ju Young. 2013. A Study on Influence of the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Wo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 Rehabilitation Research*. 17(4): 53-77.
- Park, Young Rye, Hye Jin Kwon, Kyung Hee Kim, Mi Hye Choi, and Seung Eui Han. 2005.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Self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9: 237-25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Eun Kyoung. 2013.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rategies of ICF on the Functioning, Disabil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Korea: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ICF in Japa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3(1): 151-175.
- Shin, Hak Gene. 2010. The Effects of Ageism Experience on Ego Integr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551-565.
- Shin, Jun Ok. 2015. Self-esteem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mpact on Earned Income Mainly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32: 69-88.
- Shin, Myong Sook. 2013. A Study on the Handicapped Employment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Centered with Korea and Swedish Institutional Comparison. *Journal of Korean Administrative History*. 32: 161-192.
- Sim, Mi Kyung. 1997. A Study on Self-esteem, Coping Type and the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3): 673-682.
- Sin, Seung Bae. 2009.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Journal of the 1<sup>st</sup> Symposium of Employment Panel for the Disabled*. 285-312.
- Song, Ae Rang. 1984. The Relationship Analysis of Health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Self-care Behavior: With Specific Reference to Pul. Tbc. P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ong, Jin Yeong.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Effect of Employment Status Change on Life Satisfaction of Mid-aged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Comparison of Gender and Disability Stat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2(3): 23-47.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Vinokur, A. D., R. H. Price, and R. D. Caplan.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 Yu, Dong Chul, Dong Ki Kim, Kyung Mee Kim, and Yu Ri Shin. 2016.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Trust and Disability Identity on Subjective Health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economic Statu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Review*. 16(7): 337-347.
- Yun, Myeong Suk, Eun Ha Park, and Su Yeon Choi. 2013. Moderating Effect of Social Discrimin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Care Giving and Quality of Life among Family Members with Mental Disorder.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1: 91-112.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이주. 2008.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29-142.
- 고민석, 김동주. 2014. 중증장애근로자의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과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웰리스학회지. 8(2): 105-114.
- 권선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지각과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8(1): 81-103.
- 권오균. 2008. 장애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7-31.
- 김계하, 김현숙, 박경숙. 2005. 중년 여성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7(2): 200-207.
- 김광자. 2011. 취업장애인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선. 2007. 뇌성마비인의 장애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소희, 김초강. 1999. 여성지체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2): 105-119.
- 김연희, 김기순.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7(1): 157-189.

- 김옥. 2006. 경로당 이용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271-293.
-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 2015. 지체장애인의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1): 27-54.
- 김종미, 김호진, 고재훈, 김성천, 최종철. 2014.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종희. 2014. 농촌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효과. 한국노년학. 34(2): 259.
- 김지태. 2011.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지각과 건강증진 행동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9(1): 43-55.
- 김태홍, 안상수, 박선영, 김난주. 2011. 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 없는 사회기반 구축.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연희, 남지란. 2011.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145-162.
- 문필동, 이정화. 2013. 장애인복지실천론. 서울: 나남출판사.
- 문필동, 이정화. 2014.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인복지학. 26: 173-192.
- 박영례, 권혜진, 김경희, 최미혜, 한승의. 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237-258.
- 박종국. 2010.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 참가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동 및 삶의 질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 2013.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후 준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7(4): 53-77.
- 박하연. 2004. 성별/성 체계에 기반한 뇌성마비 장애여성의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인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 박현숙. 2014.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수용의 매개 및 대인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0: 105-123.
- 백은령, 노승현. 2009. 중·노년 지체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3): 71-104.
- 백은령. 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4.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 국제장애분류 개정판.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 04. 20. 보도자료.
- 송애량. 1984. 건강통제위 성격, 자아존중감 및 자기간호행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 2012.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성별과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2(3): 23-47.
- 신명숙. 2013. 장애인 고용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스웨덴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2: 161-192.
- 신승배. 2009.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학술회의논문집. 285-312.
- 신은경. 2013. 장애인의 기능과 장애, 환경요인에 관한 ICF 활용방안: 일본의 생활기능장애 건강분류(ICF)의 활용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3(1): 151-175.
- 신준옥. 2015.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교육. 32: 69-88.
- 신학진. 2010.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51-565.
- 심미경. 1997. 장애어머님의 자아존중감, 대처유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3): 673-682.
- 안준희, 김승용. 2009.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적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645-1663.
- 유동철, 김동기, 김경미, 신유리. 2016. 장애인의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정체감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337-347.
- 윤명숙, 박은하, 최수연. 2013.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 경험과 삶의 질: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21: 91-112.
- 이선영. 2003.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3: 125-147.
- 이선영. 2004. 생태체계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우. 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파주: 집문당.
- 이성규. 2014.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 고용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6(4): 281-306.
- 이준상. 2010. 간질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20(1): 5-24.
- 이중섭. 2009. 빈곤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5.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 이지원. 2000. 뇌성마비아 어머니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 모자보건학회지. 4(1): 47-54.
- 이현송. 1999.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과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85-206.
- 이후연, 백종태, 조영채. 2016. 일부 도시지역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0): 569-581.
- 전병제.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덕진. 2014.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4(2): 247-275.
- 정민철, 김용희. 2006. 정신장애인의 애착과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11(4): 627-642.
- 주영하, 정익중. 2016. 발달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와 근로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1): 55-78.
- 최수진, 권정미, 이교일. 2014. 임시근로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3): 147-16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2015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현은민. 2007.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한국정관리학회지. 25(1): 45-58.
- 황혜민, 이명선. 2011. 척수손상 환자의 희망,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3(2): 189-197.

Received: Mar. 10, 2017 / Revised: Apr. 19, 2017 / Accepted: Apr. 26, 2017

##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고찰하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차별경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 7차년도 자료이다. 분석대상은 7차년도 패널조사의 등록 장애인 4,082명이며, 그 중 임금근로 장애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건강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정(+)적으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부(-)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고, 차별경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삶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 차별경험

Profiles **Gyoung Hwa Kim** : She is in a doctoral course, 4th semester, majoring in health and welfare at Dankook University; and is working for Sarangche Nursing Home as a director of welfare department. Her main interests are practice of social welfare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etc. Main article i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rkers at Senior Welfare Facilities(2012)” (kghwa40@naver.com).

**Eun Kyong Shin** : She completed doctorate in social welfare (Ph.D.) fro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octoral Thesis: Analysis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2007) and has served as an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Dankook University since 2008. The main research topics are about social work practice, disability study, and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scales and index. The released articles are as follow.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guaranteeing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focused on social membership and health inequality. 2016”, “The mixed methodology application study on the career skills of the disabled-employers’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2016”,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life satisfaction for disabled baby boomers. 2015” and the like(fiat87@dankook.ac.kr).